

산돌

| 퍼낸이, 퍼낸곳
한국기독교장로회 예가교회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22-41
☎ 756-7707
Fax 756-7607

| 인터넷
<http://yega.org>

| 담임교역자
조익표

| 부교역자
장영진, 조영희

예가교회

**예가교회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거듭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족으로 성장한다.**

금주의 말씀	2
중보기도	5
매일기도	6
성경 자세히 읽기	8
가족소식	12
발에 감추인 보화	14
예가소식	16

“사랑하는 삶을 배우고 성장하며”

가족 모임 워크북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깨닫고 느낀 바에 따라서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이르도록,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발표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배우고’ 파트에 속한 말이다. 사랑하는 삶을 배우는 파트는 성경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며, 순종함으로써 나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을 바꿈으로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을 깨닫고 느낀 바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이르도록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발표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모임이 있을 때 마다 늦는 자기의 습관이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는 깨닫고 느낀 바에 따라서 ‘이번 한달 간 모임에 늦지 않는다’ 라고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그 목표에 이르도록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한다. 그는 매번 모임에 늦게 되는 것이 도착시간을 계산해서 50분 걸리는 시간이면 50분에 딱 맞추어 떠나는 자신의 습관에 있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예상시간에서 10분 먼저 떠나기로 실천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서 10분 먼저 떠나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10분 먼저 떠나기’를 실천계획으로 잡는다. 그래서 머리를 감

지 않았든, 준비물을 빠뜨렸든, 자기가 세운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그렇게 한 달을 살아보고 다시 반성한다. 그리고 반성한 내용에 따라 다시 한 달간을 모임에 늦는 자기의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한다. 이 경험은 나의 경험이다. 나는, 모임에 늦는 행동과 태도를 ‘사랑을 배우며’ 파트에서 제시된 대로 실행함으로써 많이 개선하였다.



마가복음서 자세히 읽기 195장에는 다음의 글이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의 감사는 내가 축복한 사람이 실제로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될 때 드리는 감사이다. 내가 복을 받아서 감사 드리는 것은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이방인들의 감사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일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어떤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가를 보려면 그 교회의 감사헌금 봉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 봉투에 무엇을 감사 드리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

지난 월요일 저녁, 인도자들은 맑은밤을 격려하는 기도회로 모였다. 맑은밤은 이번 입원과 수술이 자기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 더 좋은 삶을 누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란 고백을 하였다. 인도자들은 맑은밤의 기쁨과 감사에 공감하며 감사헌금을 하기로 하였다. 그 시간은 맑은밤의 감사에 모두 하나되어 우리가 배운 사랑하는 삶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 요한복음서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문이 복음서마다 나오기는 합니다. 공관복음서의 기도는 주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서에는 주기도가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서 17장에 예수님의 아주 긴 기도가 등장합니다.

지금 읽은 부분과 같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

요한 주제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별된다고 ‘거룩’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맨날 꼴찌 하는 친구들도 구별되니 ‘거룩’한 것 같지만, 꼴찌한테 ‘거룩’하다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거룩은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구별되는 것,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인간과 하나님이 다르다고 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여

러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길과 다른 것,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다른 것, ‘너희는 땅이요, 나는 하늘이다. 너희가 동이면 나는 서이다’ 이런 정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섞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길은 쉽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무엇인가 결정해서 가면 그것이 다 인간의 길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길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올바르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길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길들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거짓말투성이고 비합리적이며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참되고 자비롭습니다.

저는 ‘세상과 하나님이 다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윤리적인 느낌에서 선과 악이 다르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은 좀 부도덕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좀 도덕적인 줄 알았는데, 점점 성경을 읽고 살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위 윤리라는 것은 규칙을 생산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규칙이나 질서나 법체계대로 반드시 백 점이 있으면 빵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시험이라는 제도가 생기면 일등이나 꼴등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윤리가 하는 기본적인 일인데, 거기서 일등이 가져가는 것이 권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세상의 권력을 정당화하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권력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권력이 바뀌어 오면서 윤리도 당연히 바뀌어 왔습니다. 권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윤리도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권력을 정당화하는 윤리적 체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권력과는 무관할 것 같은 수학조차도 그 시대의 권력을 힘 있게 하는 수학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수학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체계를 만들어 공리를 가지고 그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만 만들어 놓으면 수학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다가 꿈꾼 것을 몇 개 적어놓은 것으로 새로운 수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수학자로 대성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학이 굉장히 순수해 보이지만 그것도 권력에 보탬이 안 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 윤리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규칙을 생성하는 쪽이야 더 말할 나위 없이 권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윤리가 먼저냐, 아니면 권력이 먼저냐 하는 것은 소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과 같이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데 붙어 있는 것이고 누가 몸통이고 누가 깃털인지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권력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규칙이 생성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권력이 바뀌면 똑같은 윤리적 체계를 가지고 새로 바뀐 권력에게 똑같이 충성할 수 있는 탄력적인 윤리가 있다면, 지탱되는



출애굽기	34 : 21 - 24
갈라디아서	6 : 6 - 10
요한복음서	17 : 15 - 19



것이고 비판력적이라면 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윤리가 등장합니다. 인간역사이래로 굉장히 많은 윤리와 그로부터 생성되는 법체계들이 있어 왔습니다. 법에 관한 명언 중 '짐이 바로 법이다'라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저는 '종교는 윤리적이다'라고 말하는 주장에 대해 종교에게 아부 떠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종교적 권력을 정당화해 주는 선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역으로 모든 종교를 윤리로 환원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종교를 이 세상의 권력 아래에 두려는 시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종교를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보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 분들은 성향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독교가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모아놓은 것을 철학이라고 하고 그 철학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삶을 질서 지우면서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삶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윤리입니다. 어떤 철학이든지 새로운 형태의 윤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철학이 아니라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들과 윤리까지 포함하는 선과 악을 아우르는 그 체계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체계는 아주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대로 말하면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거룩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소위 윤리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나름대로 그 체계 안에서 상위 클래스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위 클래스에 속해 있는 사람들 정도면 세상에서도 아주 훌륭한 사람들에 속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윤리의 주요 임무라면,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기관은 입법부입니다. 입법부의 활동은 윤리에 기대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의 모든 활동을 윤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위 지혜 있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이 입법부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체계 속에서 상위레벨입니까? 국회의원들은 윤리적인 체계 안에서 거룩한 분들인가요? 그분들은 윤리적인 체계를

무시하시는 분들이니 정말 거룩한 분들이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삶 속에 하나의 인간을 끌고 나가는 그 지혜 중에서도 현실적인 삶을 질서 짓고 규정하는 윤리적인 체계 가운데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있으면 꼭대기쯤에 있는 것이 종교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진짜 어려서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어리석었으며 이 세상의 삶에 많이 탐닉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의 길처럼 보이고 때로는 굉장히 윤리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측정할 수도 없고 잴 수도 없으며 그 넓이나 깊이나 넓이를 측량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키를 측정하는 방법은 땅에서부터 높이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키 큰 뱀은 어떤 것이 키 큰 뱀일까요? 그 측정 방식으로는 두꺼운 뱀이 키 큰 뱀일 겁니다. 우리는 키를 잴 때 땅바닥에서 높이를 재지만 뱀들의 키를 잴 때는 머리서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잹니다. 측정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측량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측정하는 방식은 성령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측량하는 방식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수학 선생은 수학으로, 영어 선생은 영어로, 미술 선생은 미술로, 음식점 주인은 음식으로, 미용실 사장은 헤어스타일로 측량을 합니다. 측량 방식이 다르지만 그 모두 인간의 측량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측량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측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겉데기로 재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 속은 모르는데 그것을 성령으로 측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길인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길이 인간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거울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거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령강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울에서 본 여러분의 모습은 앞으로 영원히 썩지 않고 변치 않는 바로 영원한 모습입니다.



입니다. 사람이 사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며 너희들이 살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
다. 여태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길에 대해
서 이야기해 왔지만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길이 바로 너희들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
는 것이 성서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길을 따라가면 안되고 하나님의 길
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인간의 길이라고 선포되었기 때문이
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서의 핵심이기 때
문입니다. 오늘 읽은 구절 중에 ‘내가 아버
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
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라고 자기 제자들을 위해
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
어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세상 사람들
을 뜻합니다. ‘이 땅에 부름 받은 우리를 세
상 사람들에게서 지켜 주십시오’라고 기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서 13에서 17장까지
이 긴 과정 속에서 두 번 세 번 언급하는 것
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
입니다.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께는 가르치
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라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거룩한 것이
며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
랑하라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으
로 설명할 수 없으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다릅니다. 사랑하라는 삶은 윤리니,
비윤리니 따질 것 없이 전혀 다른 세계입니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입장
에서 보면 세상의 삶은 옳은 것도, 틀린 것
도 없는 다른 것입니다.

코모도라고 하는 도마뱀 중에서 무지하
게 큰 것이 있습니다. 그 도마뱀한테 물리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 도마뱀의 침에는 200~
300종에 달하는 엄청난 박테리아들이 존재

한다고 합니다. 한 번 물리면 그 침이 들어
가서 뭐든지 썩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 도마
뱀이 사냥하는 방법은 물어서 그 동물이 일
정 시간이 지나 죽으며, 썩는 냄새로 죽은
시체를 찾아내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모도 왕도마뱀이 썩은 고기를 먹는 것을
옳다, 옳지 않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 윤리, 정의,
평화 뭐든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관없
는 것입니다. 옳든지 틀리든지 아무 상관없
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혹시 교회의 삶
을 전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든,
나쁘다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나쁘다고 하면 나
쁜 겁니까?

우리가 교회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잣대로 재어지지 않는 것입
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삶이 참 가치 있
고,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배운 것으로 스
스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동
쪽에, 우리는 서쪽에, 너희는 땅에, 우리는
하늘에 전혀 다른 곳에 살고 있고 전혀 종자
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
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
희들이 만약에 육체에 심으면 썩을 것을 거
두고 성령에 심으면 영원한 것을 거둔다’라
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썩을 것을 거둔다
는 말은 이 세상에서 유용한 것을 거둔다는
뜻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썩을 것으로 이 세상에서 유익한 모
든 종류들은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
다. 그것이 바로 육체에 심는 것입니다. 그
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바울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일은 유통기한이 없이 언제든지
쓸 수 있고, 늘 쓸 수 있고, 영원히 쓸 수 있
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죽을 때
가 가까워오면 누구를 좋아했던 일들을 끄
임없이 떠올리나 봅니다.

바울의 부활관에 따르면, 그렇게 유통기
간이 영원한 것들로 우리의 부활은 구성된
다고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한다면, 유통기간이 없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육체에 계속 심는다면 우리가 부활할 때 유
통기간이 다 되어 부활하려다 썩을 수도 있
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에 속해 살면서 그냥 그 사람들의 좋은 생각
이든, 나쁜 생각이든 우린 늘 그 사람들을
만나고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겉보기는 비
슷해 보이나 근본이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실천하기 힘든 것도 아
닌 사랑하라는 말씀, 그 말씀 하나만큼은 이
세상의 잣대와 다른 것이고 이 세상의 표
준과 모든 지혜와도 전혀 다른 것을 알고 사
랑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잘
못 됐다, 잘 됐다라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세계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에게 하나님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거울에 비
친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
다. 제가 늘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거울
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거울에서 발
견할 수 있는 그런 성령강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울에서 본 여러분의
모습은 앞으로 영원히 썩지 않고 변치 않는
바로 영원한 모습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키워갑니다



드림 황현미: 화음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고 유유님의 기도생활을 격려하겠습니다.

마리아 강수진: 요한님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롬 류정희: 화음님, 마리아님께 간식선물과 문자를 하겠습니다.

나무 하태용: 바람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유유 박서연: 짝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음 김진승: 새롬님과 짝기도를 잘하겠습니다.

초록 한춘희: 팔짱 간식을 준비하고 준비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해 석재호: 안부의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바다 김진영: 사랑과 감사의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푸른 김영남: 일대일 만남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카라 이희영: 비정기모임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에스더 권영아: 비정기 모임 때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신나 류수옥: 섬기시는 빌립님과 봄님께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아모 박주은: 가족모임 사진을

미루지 않고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소망 김강민: 카페출석을 하고 댓글을 잘 달겠습니다.

사랑 최현숙: 일대일 만남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빌립 이종진: 일대일 만남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마르다 석순명: 일대일 만남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씨앗 김은영: 일대일 만남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봄 김태연: 일대일 만남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모퉁이돌 이영교: 찾아가는 일대일 만남과 식사대접을 하겠습니다.

뿌리 조민경: 한가온님을 위한 기도하고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샤론 김진수: 일대일 만남을 준비하고 모퉁이돌님께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좋은 정상도: 즐거운님께 감사 선물을 하겠습니다.

즐거운 이한재: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가족들에게 문안인사를 하겠습니다.

한가온 양세련: 가족들에게 전화로 안부인사를 하겠습니다.

미리내 황호영: 준비해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진주 이인화: 준비해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찬미 정현옥: 준비해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독립군 이창주: 일대일 만남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김강진: 사귄과 여가주간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샘물 박행수: 준비해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늘빛 김숙정: 준비해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희은 박용제: 가족들에게 안부 문자를 하겠습니다.

잎새 정영희: 준비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생명 김성원: 준비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광야 김규동: 가족원과 안부통화를 하겠습니다.

보라 석순근: 준비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보물 서보람: 준비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별빛 이태웅: 일대일 만남을 준비하고 감사선물을 하겠습니다.

성실 신정아: 온유님께 가족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섬김 강수덕: 준비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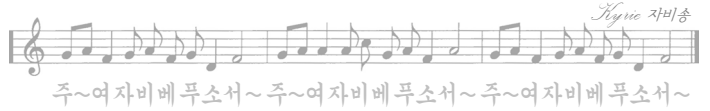
달빛 김주영: 기도 후 가족모임 카톡방에 그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큰열매 김영미: 성실님께 선물을 하겠습니다.

은석 석순화: 성실님과 산보하며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성령강림절 아홉째 주



아침 기도

시편찬양

시편 106편 6-12절
소리내어 천천히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물이 대적을 덮으므로,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 남지 못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첫 기도

주님, 교회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내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주
소서. 남의 생명을 깎아서 자기의 생명을
채우려 했던 이기적인 옛 존재는 죽고, 나
의 생명을 주어 많은 생명을 유익하게 하
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존재, 성령
으로 가득한 존재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
여,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독서

마가복음서 사도행전
13-14 / 15-16 / 1-2
3-4 / 5-6 / 7-8
소리내어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주기도

소리내어 천천히

하루의 계획 & 청원 기도

기도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일상계획과 말씀실천계획을 적
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를 위한
청원을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 예가교회가 주중에는 사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조
차 잘못하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스
스로 괴롭히는 과거의 속박을 끊게 하소
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미래를 향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
소서.

† 예가교회가 돈과 하나님 중에 모든 것
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서,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 온 세계와 한국의 교회들이, 화해와 일
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
울 수 있게 하소서.

† 한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배인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분단의
고통을 평화적 통일로 치유할 수 있게 하
소서.

† 예가교회의 교역자들이,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
랑의 능력을 주소서.

†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인도자들과
재정과 수고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사
랑의 기쁨을 주소서.

† 예가교회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의 새
가족과 새 고향의 꿈을 만들어 가는 일이
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필요들을 채워주소
서.

† 예가교회의 가족모임이, 사랑을 행하
며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소서.

† 예가교회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지켜주소서.

† 예가 식구들이,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비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마침 기도

주님, 지난밤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탈 때나,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되게 하소서. 아멘.



시편찬양

시편 89편 20-37절
소리 내어 천천히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 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그를 이겨 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부수겠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 주겠다.
그의 손은 바다를 치며
그의 오른손은 강을 정복하게 하겠다.
그는 나를 일컬어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나도 그를 말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그의 자손을 길이길이 이어 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이 다할 때까지 지켜 주겠다.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내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밤 기도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 번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왕위는 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니,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셀라)

첫 기도

주님,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모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언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감사의 기도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돌아보아, 잘못된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잘된 일에는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기도

천천히, 내용을 따라

마침 기도

생명의 주님,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낮 동안 활기 있게 하신 주님, 자는 동안에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비오니, 오늘 이 밤도 나를 찾아오시어, 주님 은총의 힘으로 새벽에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자세히 읽기 요약 (2)

이 글은 '목요성경고급반 : 데살로니가전서 읽기' 모임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매주 교우들에게 문자로 보낸 내용에서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21.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현상을 '사랑'이라고 가르쳤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면 '사랑하는 일'이 나타난다. 즉, 내 것을 주어 너를 살리는 사랑을 할 때에 이 현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 받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인가? 아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인간의 문제가 사랑부족증, 즉 애정결핍증 때문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이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서 '사랑 받지 못해 괴로운 인생'을 설교하는 교회들도 많다. 이것은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동물'이라고 규정할 때에나 가능한 주장이다. 그러나,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규정할 때에는 인간의 문제는 '사랑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22.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 당위로 말씀을 지킬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곧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되고 희망이 될 때에만 우리의 삶은 변화한다. 부자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답했지만, 그에게 계명은 당위였지, 자기 존재의 목적이거나 희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기에 부족했던 것이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 나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의 말씀은 사람의 탐욕과 이기심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내세천당이나 가화만사성, 부자, 성공을 소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로 몰리고 있는데, 이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표시이다.

23.

마가복음서의 '아버지와 아들' : 마가복음서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가복음서 3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형제요, 어머니라고 선언한다. 여기서 '어머니'는 자매란 말도 아니고, 여자라는 말도 아니다. 중국의 고전 시경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는 말처럼, '어머니'라는 상징은 '양육자'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의 형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는 것을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이다. 마가복음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용서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에, 그리고 그럴 경우에만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있으며, 그때에 나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

계가 성립된다. 마태복음서는 이 용서 주제를 확대하여 산상수훈을 전개하고 있다. 산상수훈의 중심은 주기도인데, 주기도의 핵심이 바로 '용서'이다.

24.

요한복음서는 처음에 읽을 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고,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구조이다. 요한복음서의 특이성은 '예수'라는 이름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예수'라는 이름을 받은 존재로서 산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권세, 신분, 그리고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다.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의 이름은 '예수'이다. 요한복음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수여해 주셨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내 목숨을 주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내 이름은 예수이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내 이름은 예수와 무관하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이다. 예수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또 예수의 삶, 즉 '사랑하는 삶'이 청원의 내용이 아닌 기도라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는 예수와 무관한 기도이며, 오

히려 악마의 자식이 청원하고 악마가 들어 주는 기도일 뿐이다.

25.

마태복음서는 마가복음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형제 관계로 본다. 다만, 마태복음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무리들을 '제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제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 가르침은 산상수훈(5-7장)에 있다. 산상수훈은 마가복음서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확대 재구성한 가르침이다. 즉, '하나님'과 '제자'를 '아버지와 아들'관계로 볼 때에는, 그 핵심에 '용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일단 먹을 것이 없으면 꾸어서 먹는데,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꾸어준다. 그리고 갚을 길이 없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관계가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26.

누가복음서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 '용서'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첫 번째 일도 '용서'로 집약된다. 이는 심리적 차원의 용서가 아니라, 경제적 차원의 용서이다. 그리고, '용서'는 마태복음서의 '원수 사랑'을 넘어서서, '평화'로 나아간다. 누가복음서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27.

바울은 종의 영과 아들의 영에 대해 우리에게 전했다. 종의 영은 '해야 한다'라는 당위로 움직인다. '사람은 모름지기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와 같은 명제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랑을 해도 기쁘지 않다. 당신은 이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좋지 않은가?

“이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좋건 싫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사랑이 당위가 된 공동체 안에는 사랑하는 것이 기쁘다고 하는 사람은 가뭇에 콩 나듯이 드물 것이다.

종에서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아들은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들이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일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예수님 이전에 율법을 당위로 실천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만' 하는 당위로 알고 살았지만,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다. 새로운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기쁜 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수여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의미이다.

28.

복음서에 따르면,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삶, 곧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선

물로 받을 것인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원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신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가? 당신은 하나님께 어떤 삶을 청원하고 있는가?

29.

'은혜'의 기본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은 하나님이 지혜롭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지혜롭게 된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말도, 당신이 능력 있게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유독 은혜에 대해서만은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기를 꺼리고, 자기가 거저 받는 쪽으로만 읽고, 거저 주는 쪽은 배제하려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바울이 인사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당신에게 은혜, 곧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이 있기를 비는 것이다.

30.

은혜의 기본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이다. 우리가 거저 받은 첫 번째는 '의식주'이다. 달리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곧 생명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다. 은혜는 내 생명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에 기초한다. 이 고백에 기초하여, 내가 거저 받은 생명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는 삶, 이것이 '사랑하는 삶'이다.



31.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현상은 무엇인가? 그 현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불신의 시대가 되어서, 믿음의 근거가 '어떤 학설'을 믿는 것으로 전락해 버렸다.

당신은 물리학의 '빅뱅이론'을 믿는가? 당신은 창조론을 믿는가? 진화론을 믿는가? 이론으로 본다면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한가가 관건일 뿐이다. 이런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어떤 이론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그 이론을 신뢰하는 사람의 지적 능력이 받쳐주어야 한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 사람들은 전구에서 번개나 나와서 자기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 접근하지 못했다. 전구가 불을 밝힌다는 것을 이해할 만한 지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진보를 거듭하다 보니, 이제는 안 믿으면 바보취급 당할까 두려워 믿는 시대가 되었다. 옛날에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 믿지 않았는데, 요즘은 지적 능력과 무관하게 믿는다. 스마트폰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몰라도 믿는 것처럼 말이다. 현대인의 99.9퍼센트가 현대과학을 이해할 만한 지적 능력이 없는데도 맹신하고 있다. 어떤 이론이 논리적으로 무모순적인지,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해 얼마나 정합적인지 물을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없는데도 믿는 것은 터무니없이 믿는 것이지, 실상은 믿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차라리 믿는다고 하지 말고, 좋다 싫다고 대답하는 것이 낫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인간의 지적 한계를 넘어서신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른다'(unknown)가 정답인 것이다. 하나님이 'unknown'인데, 하나님에 대한 학설이 존재한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한 때 신학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

려고 했으나, 이런 시도는 그 자체로 넌센스이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학설을 놓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도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잘 알아서 믿는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내용은,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삶의 모든 근거들이 나의 배후에 있는 '물음표'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을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된다. 내가 주고, 내가 세우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모른다. 다만, 나를 넘어서는 나 이상의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거저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거저 나누는 '은혜'의 구조이다.

32.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의 근원, 나의 생명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다. 요한1서는 내가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전한다.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주겠다는 것', 이것을 내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로 고백하고 누리는 것이 '사랑하는 삶'인데,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 그렇다. 믿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안다는 말이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몸소 사신 '은혜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교우들을 사랑할 때에, 나는 나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33.

'내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믿고 결단하더라도, 이는 합리성의 세계일 뿐이다. 결국, 관건은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있는데, 합리적으로는 백 점 만점이 기준이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합리적이지 않다. 즉, 마음과 몸이 일치하지 않는다. 오늘 백 만원을 벌었다. 그런데 마침 옆에 있는 교우가 백 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백 만원을 모두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원밖에 못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다는 은총을 믿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큰 차이가 없다. 내가 백 만원을 주고 싶지만, 손이 가다가 밑 장 빼기를 한 것이다. 99장을 빼고 한 장을 준다면, 손이 잘못된 것이지, 당신 자신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고, 실력이 거기까지밖에 안되니까 한 장만 준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백분의 일짜리 실력으로 머물 수는 없지 않은가? 성장이라는 것은 사랑의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다.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내가 만 원을 준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또,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가? 내가 99 만원을 못 준 것을 슬퍼해야 한다.

34.

성경을 읽는 목적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요5:39)

성경은 인생의 활로(살 길)을 얻으려고 읽는 것이다. 이 목적이 잘못되면, 성경은 절대 읽혀지지 않는다.

사는 것은 몸으로 사는 것이다. 정신으로도, 영으로도 아니고, 오직 몸뚱이로 사는 것이다. 손발을 움직이고, 일을 하는 것은



모두 몸뚱이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몸뚱이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를 배워야 한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몸뚱이를 움직여야 할 길을 닦는 것을 뜻한다.

35.

성경을 읽는 까닭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영원한 '길다'는 말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 '항상 그렇다'는 말이다. 꽃이 10일을 가는 것과 10일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이다. 지금 현재 시작된 것이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면, 현재가 지속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현재가 아닌 다른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영원'은 '영원한 현재'라고 말해도 된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생명이 있는가? 서양철학은 이를 '이데아'라 부르는데, 성경은 생명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다. 생명의 본질을 얻으면 그 본질에 따라 내가 할로(생명의 길, 살 길)를 개척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이 점에서 우리의 몸은 지금이라도 당장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 생명의 본질이 바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36.

음식조리법에는 재료, 분량, 조리법이 모두 있다. 그런데, 조리법에는 도저히 모를 표현이 하나 있다. '적당히'라는 표현이다. 이것 때문에 조리법을 보아도 제대로 음식 맛이 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술한 경험이 요구되는 솜씨의 세계이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조리법이나 매뉴얼을 아는 정도로는 결코 해결이 안 된다. 솜씨가 될 정도까지 가야 하는데, 이는 자기 몸으로 술하게 살아내는 수 밖에 없다. 성경을 조리법이나 매뉴얼로 읽지 말고, 솜씨가 될 때까지 살

면서 읽으라.

37.

우리가 버는 돈은 거저 받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인가? 거저 받은 것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내가 쓰는 돈은 전부 하늘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다. '은혜를 받으라'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라'가 맞다. 그런데, 교회들이 '은혜를 받으라'고 가르치니, 은혜를 베풀 생각은 않고, 전부 받을 생각만 한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다. 이는 용서의 구조와 동일하다. 용서하는 사람만이 용서받은 사람이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수 없다. 사랑, 구원, 자유 등 성경의 개념들이 이와 같은 구조이다.

38.

내가 거저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저 줄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거저 주면서 손이 떨리고 배가 아프면, 이것은 내 몸뚱이가 생명을 누릴만한 몸뚱이가 아닌 것이다. 체조선수 손연재가 공중제비를 하려고, 얼마나 몸을 단련했겠는가? 손발이 꺾이고, 넘어져서 멍들어 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단련해서 체조선수의 몸을 만든 것이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겠다고 와서는, 거저 줄 때마다 떨리고 아픈 그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단련시킬 생각이 없다면, 그 죽은 몸뚱이가 언제 생명 있는 몸뚱이가 될 수 있겠는가?

39.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은혜'와 '평화'가 나란히 있다. 이는 우리가 서로 거저 주는

삶을 살면, 우리 사이에 '평화'가 생겨난다는 말이다. 거저 주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깊어진다는 것은 생각만해도 이상하지 않은가? 거저 주는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과 싸움이 생길 수가 없다. 오히려 갈등과 싸움은 없어지고, 우리 사이에는 유쾌한 날, 기쁜 날, 곧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은혜의 삶', 이것이 바로 '평화로 가는 길'이다.

40.

교회가 선택한 평화의 길은 연좌농성이나 탱크에 꽃을 꽂는 일이 아니라, 내 옆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을 먹이는 일이다. 답답해 보여도 우리는 이 길 밖에 없다고 믿는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평화의 이름으로 법을 개정하고, 전쟁을 벌였는가? 강대국들과 UN은 세계평화를 위해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평화의 이름으로 불벼락을 퍼붓는 대신에 빵을 퍼부었다라면 평화는 더 빨리 찾아왔을 것이다. 교회가 택한 평화의 길은 '은혜' 곧 '거저 주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목숨'일 지라도 말이다. 이 길을 예수님이 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부른다.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족의 1분 스피치 & 사랑 이야기



열음 가족

화음님 댁에서 7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34기 101반이 긴장과 기대 속에 개강되었다,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가족과 교우들이 있어 힘이 난다, 맑은님이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더욱 사랑하는 삶을 향해 격려해주는 대화가 감사하다, 드림님과 일대일 만남을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누고 격려 받아 좋았다,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얘기하니 아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다, 대학원 친구들을 만나 사귀게 되었다, 지인 부부가 교회를 방문하신다고 해서 기쁘다, 새롭님과 일대일 만남을 통해 힘을 얻었다, 남편의 출장으로 열흘 넘게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새로운 회사에 가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재미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듯이, 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우들을 사랑하겠다, 맑은님 병간호할 때 따뜻한 유머를 준비하겠다, 예배위원을 기도로 준비하겠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둘 판에 새겼듯이 하나님을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일대일 만남을 위해 기도하겠다, 짝과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호호 가족

해님 댁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아침운동 시작 전에 하는 호흡기도가 매우 유익하고 기쁘다, 치과치료를 시작하면서 약간 우울했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마음먹으니 괜찮아졌다, 교우 몇 명과 맑은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의연한 맑은님이 돋보였다, 맑은님 수술에 많은 교우들이 함께 호흡기도하며 힘을 모아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 수 있었다, 미루었던 임플란트 수술을 해서 마음이 가벼워졌다, 교회의 믿음 있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본인과 다른 교우 모두의 믿음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신 장목사님 말씀대로 교우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사는 아내를 보니 기쁘고 좋다, 아버지가 생신을 맞아 제주도로 2박3일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컴퓨터 교육을 받는데 힘들지만 지금이 순간을 잘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성령은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에 집중하였다, 사랑하라는 것에는 같이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신발장 정리를 더 열심히 하겠다, 해님가족에게 문자를 보내고 식탁가족 어린이의 선물을 준비하겠다, 식탁가족에게 감사문자를 보내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애프터 시간에는 아프리카에 대해 공부하고, 이웃들을 돕기 위한 8월 4일 바자회 준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목 가족

독립군님 댁에서 7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잇몸에 좋은 옥수수물이 효과가 있어 좋다, 야근을 하게 되어 연속 2주 대금강좌와 가족모임에 불참했다, 웃는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올리는 과제를 실천하려고 사진을 찍었는데 도저히 카톡방에 올리는 것을 못하겠다, 그래도 계속 해보려고 한다, 초청한 분과 함께 101반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 성가대 문화제 곡이 좋아서 연습할 때마다 기분이 좋다, 포도밭에서 풀을 뽑다가 벌레에 쏘여서 병원에 두 번이나 다녀왔다, 비가 계속 와서 포도 따는 일이 늦어져 아직 끝내지 못했다, 101반

시작과 함께 교회에 초청한 후배와 시간을 내어 함께 식사하며 좋은 시간을 가졌다, 맑은님 수술 전 기도회에 참석해서 맑은님의 빠른 쾌유를 빌었다, 새벽 5시 30분에 남산 산책 멤버들이 모여 함께 체조와 호흡기도까지 하게 되어 하루 시작을 매우 뿌듯하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말씀에 집중하겠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편안한 마음일까 하는 내용을 보며 묵상하겠다, 사랑 이외에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살자는 마음이 생겼다, 식탁가족에게 선물을 하겠다, 주방 청소를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해님 가족

큰열매님 댁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초등부 엠티에서 교사들과 사귀고 스토리가 있는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기대된다, 맑은님의 수술이 마치 예가고 회 전체의 축제처럼 진행되는 것을 보며 새삼 그녀의 무게를 실감하고 사랑의 수고에 감사했다, 결



혼과 함께 있고 살았던 성북교회 친구 3명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아영이의 친구를 데리고 수영장과 놀이공원에 다녀왔다. 주일물놀이 사진을 양육모임 카톡방에서 즐겨 보고 있다. 치과와 마트로 운전해 주시는 분께 김치와 녹두전을 선물했다. 달빛님이 모란까지 오셔서 즐거운 일대일 만남을 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데 기도를 쉬지 않겠다, 맑은님 뵈문안을 가졌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 하나님의 가족은 이방인의 가족과 구별되며 그 가족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구현한다, 교회 계단 청소를 하겠다, 교인들의 손을 마사지하며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하늘바람 가족

한가온님 댁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후배집을 방문하여 사귀을 가졌다, 저녁식사를 대접하며 101반에 초청했다, 섬김과 격려 주간 섬김을 맡아 신약을 매일 읽으며 가족들을 생각하고 카드를 작성했다, 맑은님 기도회에 참여했다, 피

리 연습을 하다가 입술에 물집이 생겨 놀랐다, 사귀과 여가 행사로 한 맛집 탐방이 즐거웠다, 혈압을 떨어지지 않고 있어 조심하고 있다, 어머니 팔순을 맞아 친척들과 식사했다, 맑은 일을 열심히 하며 결과가 좋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 참되다고 믿는다는 것은 그의 가르침과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음의 평안을 좇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게 되었다, 식탁가족에게 감사문자를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소원하고, 지켜내고, 칭찬하는 삶이다, 그런 삶을 향해 항상 기도하겠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배웠다, 교우들을 바울의 마음으로 대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정오 가족

맑은님 댁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부산에서 작년 출장 때 만난 손님을 만나게 되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맑은님의 좋은 경과에 감사했다, 병원을 방문하는 교우들의 모습에서 사랑하는 삶을 배

울 수 있어 좋았다,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 메뉴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출장 다녀온 보라님과 일대일 만남시간이 좋았으며 인도자님 수술로 간병스케줄을 짜면서 적극적인 교우들과 가족들에게 감사했다, 논문을 완성하고 예배를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 직원을 구해서 다행이다, 항상 기도하며 살려고 애쓰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는 것이며,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이 평안한 마음으로 쉽게 사는 것은 아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하는 마음임을 배웠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과 딸이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나도 그럴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웃는새 가족

빌립님 댁에서 8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지호와의 일대일 만남으로 대학로에서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함께 했다, 시간을 내어주는 학생부 아이들에게 참 감사했다, 이렇게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참 감사하고 좋다, 맑은님이 수술하고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다, 예배준비와 성찬준비로 즐거운 주말을 보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 성찬준비가 좋았고 애써 주신 사랑님과 가족들에게 감사했고, 두 번째인데도 능숙하게 준비해주신 씨앗님,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준비해오신 봄님께도 감사하다, 성가대 찬양에 더 집중하고, 목사님 설교에도 집중하여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썼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에서 사랑하는 삶을 지키고 또 전하는 일을 쉬지 않을 것이다, 노예로 살며 찌질이라도 힘들어 그렇게 구원을 원했던 이스라엘이 광야로 떠나서 반년도 못 되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노예는 싫은데, 거기서 살던 삶은 그리워하는 모습에서 이것저것 끌어 붙여 섞어 사는 나를 본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고백하면 나도 사랑임을 알고 사랑으로 삶을 채울 것이다, 그저 나의 필요에 따라 아버지나 주님으로 부르며 내가 하나님 위에 있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사랑하는 삶을 지키도록 애써야겠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교우들이 내게 준 선물

웃는새가족 아모 박주은



1년에 한 번씩 소식지 글을 쓰게 되는데, 매번 ‘무슨 얘길 쓰지?’ 하고 고민한다.

이번에도 무슨 얘길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며 잠을 설쳤다. 작년에 내가 쓴 글을 찾아봤다. 나에게 생긴 작은 변화를 내 믿음의 성장으로 여기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에게 생길 또 다른 좋은 변화를 기대하는 글이었다. 작년에 그 글을 쓴 이후, 나에게 생긴 또 다른 좋은 변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작년 여름, 웃는새 가족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방송댄스를 배웠다. 문화제 준비를 위해서였다. 돌도 안 된 아기를 둔 엄마가 매주 두 번씩 저녁시간에 뭔가를 배운다는 건 평소 나에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웃는 새 가족의 문화제 무대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나를 열심히 다녔지만, 갈 때마다 허우적대다 오는 느낌이었다. 동작을 제대로 따라 하지도 못하고 순서도 기억이 나질 않아 애꿎은 나 이 탓만 했었다. 두세 달 정도 배운 후부터 가족모임 애프터 시간에 내가 배운 것 중 가장 쉬운 곡을 골라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며 재미있게 지내다가, 여름수련회 때 열띤 열정에 앞에 나가 그 곡을 선보이게 되면서 나는 ‘춤 잘 추는 아모’가 되었다.

그 일을 계기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

게 되리라곤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던 내가 공동체 춤 배우기도 아닌, 노래 배우기 시간에 앞에 나가 트롯에 맞춰 몸을 흔들기도 했고, 올해는 공동체 춤 배우기를 담당하게 되었고, 초청 워샵 때 노래팀 팀장을 맡기도 했다.

나는 춤을 잘 못 춘다. 수련회 때나 문화제 때, 내가 잘 추는 것처럼 보인 이유는 딱 하나,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 내가 제일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하는 것으로 보인 것이다. 작년에 그렇게 많이 연습한 그 춤을 지금 다시 추려면 난 할 수 없다. 그 후로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은 초기화되었다. 하지만 내게 남은 것이 있다. 내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 “안 할래요~”하기보다 교우들이 나로 인해 즐거워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에게 생긴 또 다른 좋은 변화이기도 하다.

‘춤 잘 추는 아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교우들에게 감사한다. 내게 교우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은사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이다. 그 은사는 교우들이 내게 준 선물이기도 하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데, 교우들의 칭찬이 나를 춤추게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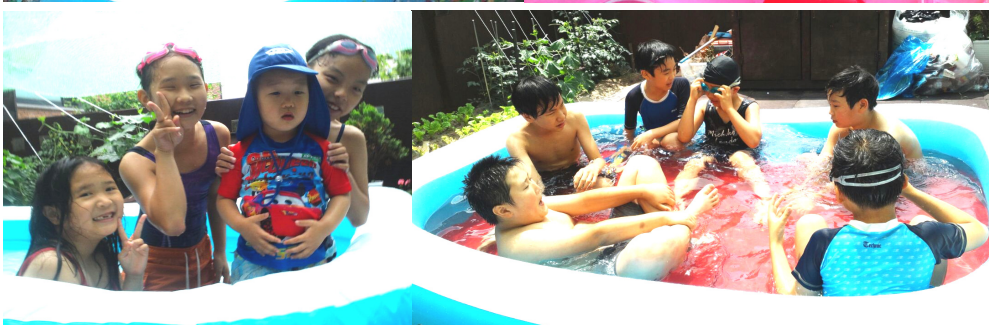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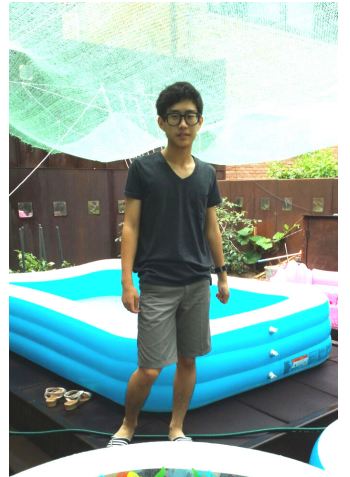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공동체 춤 배우기 준비를 하고 있다. 드림님과 함께라 든든하다.

지난달에도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해 걱정했는데 교우들이 모두 즐거워해주셔서 많이 기뻐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도 ‘나 혼자’ 또는 ‘내가’ 하는 일이 없음을 느낀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됨을 안다. 내가 잘해야만 교우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누가 뭘 해도 예쁘고, 즐겁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쁘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다. 행복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다.

주일 물놀이

매년 자녀양육모임에서는 한여름이면 매주일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를 진행합니다. 2013년도에는 이른 무더위로 6월 16일부터 시작하였으며, 8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학생부에서 매주 한 명씩 풀장설치를 도와 양육모임의 회원들과 사귀을 가져 더욱 즐겁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형님의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놀이로 신난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감상하시고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가 소식 & 공지

바랍니다. 연경반 내용을 정리한 문자 발송도 계속됩니다.

7. 목요기도회는 연경반 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금은 성령강림절기입니다. 성령강림
절기 동안 서로 격려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를 누립시
다!

2. 주일식탁에서는 자녀들도 새 이름으로
불려서 모든 교우들이 새 이름으로 서로를 부
르며, 하나님의 새 가족으로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새 이름이 정리되
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아직 이름이 없는 식
탁원은 7월 중에는 이름을 확정할 수 있도록
식탁장님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녀양육 워크숍 이후에도 초청했던 이웃
들과의 사귀는 지속적으로 갖기 바랍니다.

5. 다음 주일인 7월 21일 부터 3주간 낮 2시
에 모여 여름수련회 준비모임을 갖습니다.

6. 목요연경반이 진행 중입니다. 연경반 강
의는 당일 밤에 자료실에 올라오니, 많은 이용

8. 신앙입문반 34기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하는 조익표 목사님과 섬기는 교우들, 그리고
초청된 34기의 회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
오.

9. 계좌로 헌금하신 교우들은 헌금 봉투에
이름, 보낸 날짜, 헌금명세를 적어 봉헌위원에
게 내주십시오. 또한 해외빈민구제 목적의 헌
금으로 드리는 주일헌금도 매주 잊지 마시고
참여 바랍니다.

10. 다음 주 예배위원은 김성원, 한춘희님입
니다. 예배위원은 공지가 나가면, 한 주간 기
도로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대접은 청년부가 대접합니다. 7월 봉헌
위원은 정상도님입니다.

날짜 성경읽기

월	요한계시록 6장 ~ 요한계시록 15장
화	요한계시록 16장 ~ 요한계시록 22장
수	창세기 1장 ~ 창세기 10장
목	창세기 11장 ~ 창세기 18장
금	창세기 19장 ~ 창세기 24장
토	창세기 25장 ~ 창세기 30장

* 소식지의 통독표를 따라 읽으면 한 해
에 1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 읽고난 후 교훈을 1개 적고, 교훈에 따
라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
항을 1개 적은 후, 그날에 실천합니다. 이 작
은 실천이 바로 순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누
룩과 같아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YEGA community church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일반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67

건축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71